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Soft Sculpture의 유기적인
형태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오 지 연

Soft Sculpture의 유기적인 형태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오 지 연

인 준 서

오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전시 '감정세포Emotional cells'를 중심으로 한 본인의 작품연구논문이다. 부드러운 재료인 코팅 목장갑을 이용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포의 형태를 연구하였다.

코팅 목장갑이라는 오브제로써의 의미를 넘어 마티에르 자체로써 실제 생활에서의 실용적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고, 재료의 질감과 색감만으로 재료의 사용에 있어 재료의 본질을 부각시키며 재료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세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로 보았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세포의 색감과 비슷한 코팅용 목장갑을 해체시킨 후 손바느질을 통해 재조합하여 세포의 형태를 제작하였다.

세포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로 분열(증식)을 하여 변화하며, 모든 감정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 이러한 세포와 감정의 변화를 유동적인 표현이 가능한 코팅 목장갑으로 다양한 세포의 형태를 참고하여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 움직임, 변형의 특성으로 Soft Sculpture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과 전시 공간에서의 다양한 설치방식을 통해 관객이 작품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인한 촉각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작품과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감정을 갖고 있는 몸의 세포 표현은 형태적으로 세포의 확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세포(몸) 밖의 세상과 소통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로는 감정과 세포의 유동적 형태 변화를 Soft Sculpture의 특성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감정 세포의 개념을 정의하고 감정세

포로서의 형태표현을 분석하였다.

표현 방법에서는 마티에르, 바느질과 촉각성 그리고 다양한 설치방식을 분석하였다.

작품분석에서는 8점의 작품에 대한 표현 방법과 표현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감정세포Emotional cells' 전시가 갖는 의미를 찾고, 부드러운 작품이 관람객에게 줄 수 있는 감정적 메시지에 대한 본인의 이론과 다양한 표현 방법의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본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3
1) Soft Sculpture	3
2) 감정세포의 개념 정의	5
3) 감정세포로서의 형태표현	6
2. 작품의 표현 특성	8
1) 마티에르	8
2) 바느질의 촉각성	10
3) 다양한 설치 방식	10
3. 작품분석	12
III. 결론	28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12
【작품2】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14
【작품3】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I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16
【작품4】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V,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19
【작품5】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21
【작품6】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23
【작품7】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25
【작품8】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25

I. 서론

현대미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료는 단순한 오브제로써의 의미를 넘어서 마티에르(Matiere)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매체로 인식되었다. 부드러운 조각은 현대미술의 표현에 있어서 작가에게 표현과 재료에 관한 연구과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 되었으며, 이러한 부드러운 재료의 출현은 현대 조각가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회화와 조각, 공예 등으로 구분 되어지는 미술 장르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의 예술은 새로운 시대의 도구이다. 이 도구는 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감수성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예술행위에 요구되는 소재나 재료도 광범위해졌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¹⁾ 미술 평론가 수잔 손탁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에서 재료는 단순한 재료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가 예술로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팅 목장갑 마티에르에 주목하고 코팅 목장갑을 잘라 바느질하여 세포에 감정이 있다는 생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포의 형태를 연구하였다. 본인은 우연한 계기로 코팅 목장갑을 발견하여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코팅 목장갑은 색감과 질감에서 친근하게 시선을 끌었고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장점을 갖는 재료라 생각된다.

본인은 이러한 재료의 특성으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연결하기보다 작품의

1) 수잔 손탁, <해석에 반대하다>, 이민아 역, 이후, 2002, p.34

주제가 되는 감정세포의 부드럽고 유동적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바느질을 하였다. 본인의 바느질은 천과 천을 잇는 과정으로 기계적인 바느질이 아닌 수(手) 작업을 통한 바늘땀으로 감정 이입의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 '감정세포'는 세포의 감정들을 형태적인 특징으로 나타냈다. 각기 독립적인 형태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 서로 연결 지어 설치되기도 하는 다양한 설치방식을 갖는다.

이 논문은 '감정세포'의 변화하는 특성을 Soft Sculpture의 유기적 형태표현으로 연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Soft Sculpture

Soft Sculpture는 20세기 초반, 회화 양식이 주도 했던 현대 미술의 탈 장르화 현상 중의 하나로 회화의 변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차원적인 화면에 한계를 느낀 입체파(Cubism)화가들은 부조에서 부드러운 재료를 가장 먼저 입체로 전환하였으며 마티에르(Matier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조형 예술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으며 시각적인 느낌만을 강조했던 근대 미술의 개념을 촉각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Soft Sculpture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팝 아티스트인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는 일상적 사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대 생활의 필수품을 부드러운 오브제(Object)로 확대시키는 일련의 Soft Sculpture를 제작하였다. 1962년 뉴욕의 그린 화랑에서 발표한 <상점(The Store)>이라는 전람회에서 천이나 비닐, 솜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였는데 이때부터 부드러운 조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클래스 올덴버그에 의해 대두된 Soft Sculpture는 새로운 기법과 재료를 찾고자하는 조각가들에게는 물론 섬유예술가들, 공예가들에게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Soft Sculpture 작품들은 예술이 추구해온 영원성, 견고함, 불변함 등에 대한 속성을 벗고 오히려 반대되는 속성들, 즉 변화, 움직임, 변형과 같은 것에 관한 표현이 집중되었다. 또한 예술작품이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전통적인 작

품의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현재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시에 구축되고 부식되는 것들로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감정세포는 이러한 Soft Sculpture의 형성배경과 개념을 토대로 코팅 목장갑을 재료로서 바느질하여, 형태를 만들고 Soft Sculpture의 변화, 움직임, 변형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의도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부드럽고 유동적인 형태가 가지는 우연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감정과 세포의 변화하는 특성을 다양한 설치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Soft Sculpture가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은 산업 발달에 따른 다양한 재료들과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한 것이다. 여러 가지 재료 중 본인은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재료인 코팅 목장갑을 사용하여 관람객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인의 작품은 언어로서의 소통보다는 감정보로서의 소통이 우선시 된다. 예술은 자기감정의 ‘전달’이기 때문에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보고 듣는 사람의 공감적 감흥(sympathetic emotion)을 얻는다. 이때 전달되는 감정의 내용(emotional content)이 곧 예술의 의미 부여라 할 수 있다.²⁾

부드러운 재료는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촉감을 느끼게 하고 만지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다. 본인은 관람객에게 작품을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고 관람객은 작품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낌으로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되어 감정세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와서는 시각적 혹은 촉각적으로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 것 외에, 조각의 기법 면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은 가진 것은 Soft Sculpture의 소재와 재료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³⁾ 이렇듯

2)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정문사. 1973 p.27, 28

본인의 감정세포 작품은 유기적인 형태의 변화와 바느질의 촉각성, 가변설치의 특성은 이러한 Soft Sculpture의 특성과 유사하다.

2) 감정세포의 개념 정의

본인의 작품 '감정세포Emotional cells'는 세포에 감정이 있다는 생각으로 세포를 감정이 있는 유기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되어있다. 독일의 병리학자 루돌프 피르호가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생긴다."고 주장한 것처럼, 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세포가 분열함으로써 비로소 증식할 수 있다.⁴⁾ 세포는 이렇게 분열을 하고 세포자살⁵⁾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한 모습이 외부의 자극에 감정이 생겨 퍼져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포자살은 일정한 수의 세포가 일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죽어야 세포분열이 계속 이루어져 성장으로 이어진다. 감정 또한 다른 감정으로의 변화과정이 있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기능은 '외부(환경)의 자극, 이에 대한 해석 및 분석, 그에 따른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감정세포는 뇌신경에 아직 전달되지 않은 자극을 감정세포가 먼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는 것이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극들도 세포들은 기억체계가 있고 그것이 감정 기억체계로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세포(몸)와 감정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3) 심경보, "Soft Sculpture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p.4, 10

4) 일본 뉴턴프레스, <세포의 모든 것>, 강금희역, 뉴턴코리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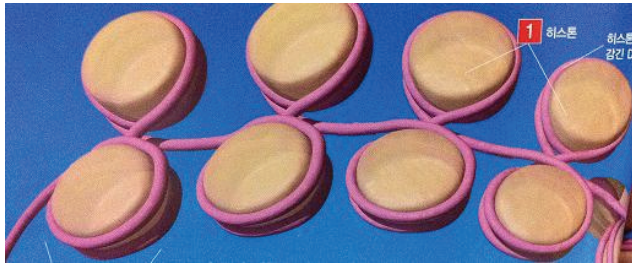
5) 세포자살이란 용어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인간이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다섯 손가락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동그스름한 덩어리 속에 손가락뼈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손가락뼈 사이의 세포가 죽어야 다섯 손가락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산소 결핍이나 독소에 의한 세포사(네트로시스 necrosis, 괴사)와 구별하여 세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세포 자살을 '아포토시스(apoptosis)'라고 한다.

생명체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세포(몸)와 감정은 본인의 작품에서 감정세포라는 유기체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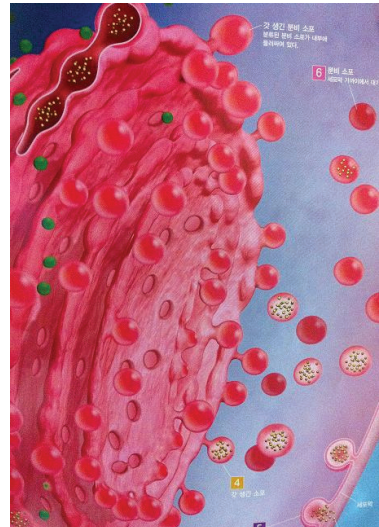
본인은 특정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감정과 세포를 복합체로 보고 변화의 과정에 있는 감정을 세포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3) 감정세포로서의 형태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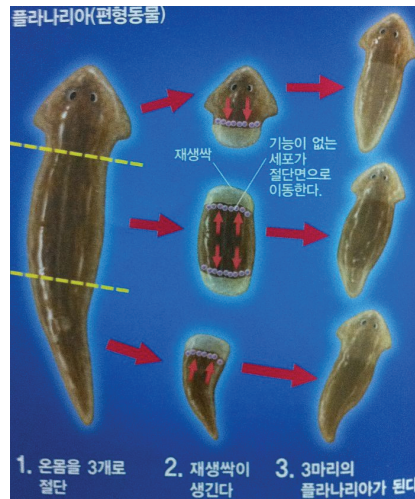
감정세포는 분열을 하고 모든 감정들은 자극을 받았던 모습에서 변하게 되고 서서히 사라지는 형태로 보여 진다.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이미지로 감정의 형태를 만들어 감정세포, 감정줄기, 감정덩어리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세포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정세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참고그림1, 2]와 같은 다양한 세포 그림을 참고하였다. 특히 많은 세포들 중에 조형적으로 표현이 용이한 세포의 형태를 위주로 참고하여 본인만의 새로운 세포의 형태를 만들었다.



[참고그림 1] 세포 그림



[참고그림 2] 세포 그림



[참고그림 3] 플라나리아 그림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세포의 형태는 한 개이자 여러 개의 유기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조각난 세포는 어느 곳을 잘라도 잘려 나간 각각이 한 마리로서 재생되는 능력을 가진 [참고그림3]의 플라나리아처럼 재생하여 재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할 때에도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다른 곳에 세포의 형태를 붙이기도 하고 완성이 된 후에도 다시 잘라내어 다른 형태로 만들기도 한다. 한 개의 작품이면서 다른 작품이 되며 전체의 작품이 되기도 한다.

본인 작품의 형태는 크게 감정세포, 감정세포 덩어리, 감정세포 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정세포가 모여 변화의 과정을 세포로 표현하고 【작품4】, 세포가 모여 감정세포 덩어리 【작품1】가 된다. 세포와 덩어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감정세포 줄기는 【작품7】 플라나리아처럼 재생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로 표현하였다.

2. 작품의 표현 특성

1) 마티에르

공업용 코팅 목장갑은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본인과 작가들의 작업실 풍경에서도 쉽게 등장하는 것으로 작업실의 필수품이다. 본인이 학부시절 일상적으로 보던 빨간 코팅 목장갑은 실용적이지만 소모성이 많은 상품으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쉽게 버려지던 것이었다. 일상적 오브제 중 일회용으로 쓰이는 재료들은 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 그것은 가벼운 재료 혹은 일상적 오브제의 선택은 예술품을 둘러싼 형이상학적 거품을 없애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⁶⁾

본인은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장갑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탈색되어 변해버린 색과 누더기 같은 질감이 마음에 들어 장갑의 마티에르를 중요시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손의 보온을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의 실용성은 재료적 특성으로 보고 재료의 본질을 인식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듯 마티에르는 우리 내면의 깊이에 대응하여 그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대변되기도 하며 때로는 경험을 초월하거나 벗어나서 새로운 표현의 양식을 암시하기도 한다.⁷⁾

마티에르의 자율성과 우연성은 의식적으로 구성되거나 논리적으로 조립된 것이 아닌 충동적인 흔적으로 이것은 마치 다른 세계와도 같은 철학적 정신성을 보여준다. 마티에르의 근원적인 질료로서의 특징이 가져다주는 우연성은 물질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의 탐구를 가져왔고, 마티에르에 생명력을 부여한 자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무의식의 표출은 정신적 종속에서 벗어난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하나의 질서를 구축했다.⁸⁾ 이는 기존의 미의 가치를 파괴하

6) 반이정, <새빨간 미술의 고백>, 월간미술. 2006 p.87

7) 홍명화, "천을 오브제로 활용한 조형적 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p.10

며 조형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려는 것으로 재료의 사용에 있어 재료의 본질을 부각시키며 재료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지연, <감정세포Emotional cellsV>(부분)

이러한 마티에르는 본인의 작품에서 장갑의 형태가 사라진 천과 색으로 남아 감정세포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흰 장갑천의 부분은 세포 덩어리를 표현하였고, 빨간 코팅 부분으로 세포의 단면을 표현하여 질감과 색채가 대비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감 표현은 <감정세포Emotional cellsV>부분에서 표현된 것처럼 장갑이라고 생각되기보다 세포의 표면이나 절단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익숙한 질감이지만 형태적으로는 익숙하지 않도록 새로운 형태를 표현한 것이 본인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 임군식, "마티에르와 행위를 통한 추상적 회화 공간 연구". 홍익대 미술대학원, 2007, p.20

2) 바느질의 촉각성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바느질기법이 갖는 독특한 표현력과 새로운 재료 탐구로 창작활동의 가능성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 바느질 기법은 평면에서 일반적인 평면도구로 사용되는 물감과 평면성을 탈피한 입체적인 형태로 다각적인 표현⁹⁾을 가능하게 한다.

본인의 바느질은 천과 천을 잇는 과정으로 의미를 갖는다. 천 조각과 천 조각을 이어 붙여 감정세포의 형태를 만들었고 기계적인 바느질이 아닌 수(手) 작업을 통한 바늘땀으로 감정 이입의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감정세포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천과 천의 이음은 본인의 감정과 감정의 연결이라 볼 수 있다. 감정과 감정을 연결시키듯 천과 천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바느질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이 부드러운 질감을 형성하여 손으로 만지고 싶은 촉각성을 갖는다. 촉각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지는 물체는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뿐 아니라 때로는 반대되는 느낌으로서 정서적으로 징그럽고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관람자들은 그것을 만져보고 판단하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유발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장갑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고 있지만 감정세포 형태의 작품은 시각적으로 친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인은 전시 중에 관람객들이 작품을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신기해하며 만져보는 행동을 하여 호기심이 유발되는 촉각성이 본인의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3) 다양한 설치 방식

본인의 설치 방식은 매달기, 바닥에 놓아두기, 벽에 설치하기 유형이 있다.

매달리는 유형은 천장에 매달아 띄우거나 천장부터 바닥까지 늘어뜨려 설치한 것으로 바닥으로 갈수록 느슨하게 설치하였다. 매달기는 중력의 영향을 강

9) 이미화, "바느질을 이용한 프리테크닉에 관한 연구". 광주: 조선대 대학원, 2005, p.36

하게 부각시키는 한 편 중력의 역학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즉 불확실하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떨어질 듯한 상태로 중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¹⁰⁾

바닥에 놓아두기 설치는 감정 덩어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것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작은 세포덩어리들도 바닥에 놓여 있게 되는데 큰 형태를 중심으로 바닥에 자유롭게 설치된다. 바닥 면에 설치됨에 있어서 바닥과 공간이 장소에 따라 자의적으로 열린 개념의 설치유형이다.

벽에 설치된 방식은 벽의 모서리에 설치되어 벽을 기어가는 모습으로 설치하거나, 벽을 바느질 한 것처럼 벽에 바늘땀의 과정을 연결하여 붙여 설치한 것으로 벽을 통과한 착각을 일으키며 공간을 점유한 모습으로 설치하였다. 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력에 의한 물체나 사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설치 방법이다. 벽을 의존하여 설치됨으로써 공간의 변형을 통하여 의식의 확장을 유도하였다.

본인의 설치방식은 작품이 움직이는 듯이 자유롭게 보이며 하나의 작품이 단일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다른 작품과 연결이 되기도 하여 유동적이며 다른 형태로 보이는 우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치미술에 있어 새로운 공간은 오브제의 물성과 그 물질이 작용하는 공간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설치작품은 단순히 공간 속에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설치작품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부분과 전체의 상호 영향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¹¹⁾

바닥에 놓여있는 감정 덩어리들은 감정이 죽어 더 이상의 분출을 하지 않는 감정이거나 되살아나는 감정, 감정이 이동하는 통로, 감정을 담고 있는 덩어리라 볼 수 있으며 바닥과 천장, 벽면 모두 작품을 설치하는 방식을 통하여 유기체 속으로 들어와 장기들을 보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하였다.

10) 권민영, "Soft sculpture의 조형적 특성과 확장된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0

11) 김영아, "조형적 특성에 따른 설치미술의 작품 분석과 작가 연구". 단국대 미술교육과 2004 p.48

3. 작품분석



【작품 1】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 가변설치, 코팅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1】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1】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코팅 목장갑의 팔목부분을 자른다. 코팅된 손바닥 부분을 둥글게 잘라놓고 팔목부분과 손바닥부분을 바느질하여 동그랗게 세포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잘라놓은 팔목부분도 시침질하여 길고 동그란 형태가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긴 띠를 만든다. 여러 개의 띠를 만들고 또 다시 띠와 띠를 연결하여 동그런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어간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솜을 넣어 께매고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포를 덩어리위에 불규칙하게 바느질하여 붙인다.

작품설명 : 부드러운 감정세포 덩어리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 천장과 바닥을 이용하여 설치되었다. 하늘위로 또는 천장위로 연결된 고리는 세포의 확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세포(몸) 밖의 세상과 소통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세포의 확장과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실내설치 이외에 야외에 설치한 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바닥에 떨어진 세포는 죽은 감정이거나 다시 새로운 감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감정세포이며 작은 세포 덩어리를 천장에 매다는 설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묘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감정세포Emotional cellsⅡ,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2】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Ⅱ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코팅 목장갑의 팔목부분을 자른다. 코팅된 손바닥 부분을 둥글게 잘라놓고 팔목부분과 손바닥부분을 바느질하여 동그랗게 세포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잘라놓은 팔목부분도 시침질하여 길고 동그란 형태가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긴 띠를 만든다. 여러 개의 띠를 만들고 또 다시 띠와 띠를 연결하여 동그런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어간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솜을 넣어 꿰매고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포를 덩어리위에 불규칙하게 바느질하여 붙인다.

작품설명 : 바닥에 길게 줄을 선 듯이 늘어트리기도 하고, 천장에 연결하여 매달아 설치하기도 하여 같은 작품이면서 다른 연출이 가능한 설치 작품이다.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면서 각각의 작품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이자 분열된 세포로 볼 수 있으며 상반된 두 면을 갖고 있는 의미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3】 감정세포Emotional cellsⅢ,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3】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Ⅲ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코팅 목장갑의 팔목부분을 자른다. 코팅된 손바닥 부분을 둥글게 잘라놓고 팔목부분과 손바닥부분을 바느질하여 동그랗게 세포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잘라놓은 팔목부분도 시침질하여 길고 동그란 형태가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긴 띠를 만든다. 여러 개의 띠를 만들고 또 다시 띠와 띠를 연결하여 동그런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어간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솜을 넣어 께매고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포를 덩어리위에 불규칙하게 바느질하여 붙인다.

작품설명 : 세포 분열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감정 덩어리가 공간을 자유롭게 점유하도록 바닥에 놓아두기 설치를 하였다.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I,III 설치장면



【작품 4】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V, 가변크기,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4】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 IV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장갑의 빨강계 코팅된 면과 손 등 부분을 동그랗게 자르고, 위 아래에 위치하도록 팔목부분을 시침질로 꿰맨다. 적당히 솜을 넣어 완성을 해놓는다.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변화가 있도록 표현을 한다. 동그랗게 완성된 세포형태를 서로 바느질하여 연결한다.

작품설명 : 세포는 분열을 하고 세포자살로 사라지기도 한다. 감정세포의 형태로 서서히 퍼져나가거나 사라지는 감정과 세포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감정은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반복에 의한 우연의 효과로 연결하여 전체적 형태를 만들었고 감정세포가 모여 있다가 퍼져나가는 설치의 방법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설치방법을 택했다.



【작품 5】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5】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코팅 목장갑의 팔목부분을 자른다. 코팅된 손바닥 부분을 둥글게 잘라놓고 팔목부분과 손바닥부분을 바느질하여 동그랗게 세포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잘라놓은 팔목부분도 시침질하여 길고 동그란 형태가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긴 띠를 만든다. 여러 개의 띠를 만들고 또 다시 띠와 띠를 연결하여 동그런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어간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솜을 넣어 께매고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포를 덩어리위에 불규칙하게 바느질하여 붙인다.

작품설명 : 감정세포 줄기의 형태로 벽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통과하는 모습으로 설치하였다. 세포 줄기의 면이 인위적인 힘에 의해 두 덩어리가 잘린 모습으로 나타내어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라도 잘라내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포 줄기가 공간의 안과 밖을 연결하여 벽을 점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6】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6】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코팅 목장갑의 팔목부분을 자른다. 코팅된 손바닥 부분을 둥글게 잘라놓고 팔목부분과 손바닥부분을 바느질하여 동그랗게 세포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잘라놓은 팔목부분도 시침질하여 길고 동그란 형태가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긴 띠를 만든다. 여러 개의 띠를 만들고 또 다시 띠와 띠를 연결하여 동그런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어간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솜을 넣어 께매고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포를 덩어리위에 불규칙하게 바느질하여 붙인다.

작품설명 : 벽을 기어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처럼 움직임을 의도한 감정세포 덩어리이다. 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감정세포를 표현하였으며 감정세포 줄기에서 분열하여 더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벽을 의존하여 설치됨으로써 공간의 변형을 통하여 의식의 확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
가변크기,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8】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I
가변설치, 코팅 목장갑 손바느질,
2010

【작품 7】 【작품 8】

제목 :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I

재료 : 코팅 목장갑, 솜

크기 : 가변설치

제작연도 : 2010

제작방법 : 코팅 목장갑의 팔목부분을 자른다. 코팅된 손바닥 부분을 둥글게 잘라놓고 팔목부분과 손바닥부분을 바느질하여 동그랗게 세포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잘라놓은 팔목부분도 시침질하여 길고 동그란 형태가 나오도록 연결을 하여 긴 띠를 만든다. 여러 개의 띠를 만들고 또 다시 띠와 띠를 연결하여 동그런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어간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솜을 넣어 께매고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세포를 덩어리위에 불규칙하게 바느질하여 붙인다.

작품설명 : 【작품7】은 감정이 이동하는 통로의 감정줄기 세포이다. 몸의 어느 곳을 잘라도, 잘려 나간 자리가 한 마리로서 재생되는 능력을 가진 '플라나리아' 생물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 재생을 담당하는 감정줄기 세포를 표현하였다. 계속해서 감정세포를 생산해 낼 것만 같은 이 형태는 반복하여 바느질로 연결을 한 작품으로 좁고 넓음을 표현하여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작품8】은 감정세포Emotional cells VII의 줄기와 천장으로 연결한 작품으로 공간의 연결을 의도한 작품이다. 잘린 줄기세포의 형태로 매달려 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쉽게 변화되지 않고 맺혀 있게 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감정세포Emotional cells' 전시 장면

Ⅲ. 결 론

현대미술에 있어 재료의 사용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와 활용 방법이 다양하다. 본인은 Soft한 재료의 풍부한 다의성에 매료되어 코팅 목장갑을 선택하게 되었다. 본인 작품의 주제인 감정세포를 표현하는데 있어 코팅 목장갑의 사용은 오브제로써의 의미 보다 세포의 표면이나 절단면을 바느질 기법으로 표현하여 코팅 목장갑의 부드러운 마티에르로써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티에르의 활용은 재질감을 부각시키고 재료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데 효과적이었다.

감정세포는 세포에 감정이 있다는 생각으로 세포를 감정이 있는 유기체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특정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감정과 세포를 복합체로 보고 변화의 과정에 있는 감정을 세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감정세포의 변화과정을 표현함에 있어 부드럽고 유동적인 형태가 가지는 우연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은 Soft Sculpture의 변화, 움직임, 변형의 특성으로 연구하였고 감정세포, 감정세포 줄기, 감정세포 덩어리의 다양한 형태를 연구하였다.

설치방식은 매달기, 바닥에 놓아두기, 벽에 설치하기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간을 자유롭게 점유하고 공간의 변형을 통한 의식의 확장을 유도하였다. 이렇듯 감정세포는 형태적으로 세포의 확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공간의 변형을 통한 의식의 확장을 유도하여 세포(몸) 밖의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Soft Sculpture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부드러운 형태는 특유의 질감으로 관람객의 시각과 촉각을 유혹한다. 본인은 관람객에게 작품을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중이 미

술 작품에 쉽게 다가 설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며 부드러운 재료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재료를 연구하여 작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반이정, 『새빨간 미술의 고백』, 월간미술, 2006

조윤경, 『초현실주의와 몸의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2008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정문사, 1973

일본 뉴턴프레스, 『세포의 모든 것』, 강금희 역, 뉴턴코리아, 2010

를로르, 프랑수아. 『내 감정 사용법』, 배영란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8

손탁, 수잔. 『해석에 반대하다』, 이민아 역, 이후, 2002

윌퍼트, 루이스.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최돈찬 옮김, 궁리, 2001

<학위논문>

김영아, "조형적 특성에 따른 설치미술의 작품 분석과 작가 연구". 단국대 미술교육 석사학위논문, 2004

권민영, "Soft sculpture의 조형적 특성과 확장된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권지현, "작품에 있어서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미화, "바느질을 이용한 프리테크닉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2005

임군식, "마티에르와 행위를 통한 추상적 회화 공간 연구". 홍익대 미술대학원, 2007

심경보, "Soft Sculpture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홍명화, "천을 오브제로 활용한 조형적 표현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Organic Forms of Soft Sculpture

Oh, Ji yeo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ork of the author focusing on an exhibition entitled 'Emotional Cells.' The work is about the forms of emotional cells made of soft material gloves.

Cotton work gloves for coating has lost practical functions and meanings in our daily lives, going beyond the meaning as an object as matiere. In this paper, I emphasized the nature of the material only with the texture and color sense of the material and the unique feature of the material itself.

This paper saw cells as organism with emotion and to express this, disassembled cotton work gloves for coating similar with cells in the color sense and reassemble by needlework to make emotional cells.

Cells change by being divided (multiplied) into the smallest units of our body, and all the emotions change, not stay. Using materials

which can fluidly express cells and changes of emotions like this, I made forms, referring to a variety of forms of cells, and these changes, mov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variation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Soft Sculpture theory.

The use of soft materials and various installation methods for the exhibition are believed to allow the audience to accept the work flexibly, and the aim of using soft texture lied in eliciting active participation and helping communicate with the work. The expression of emotional cells of the body means the expansion of cells in terms of form and furthermore, the desir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outside cells (body).

As a theoretic background, I conducted literature review in regards to flexible changes in forms of cells and emotions as characteristics of Soft Sculpture. I also defined the meaning of emotional cells and analyzed formative expression of emotional cells. In methodology of expression, I examined matiere, needlework and tactile features, and various installation methods. Eight works were analyzed in terms of expression methods and contents.

From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e discussed what the exhibition 'Emotional cells' meant, summarized the theory of the author about what kind of emotional message soft work delivers to the audience and the results of various expression methods, and explored the directions for the author.